제1강 왜 노장인가—노장적 사유의 여정과 새로운 모색 I

(1교시)

* 강의목표 : 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접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재 우리 학계의 조류를 살펴보고 중국이나 서구와는 또 다른 새로운 사유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철학자들의 여정을 살펴본다.

* 참고문헌 :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도가 철학과 서양철학의 만남,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 책 소개 : 『노자』-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김홍경 지음, 들녘, 2003

→ 실제 원인에 가까운 해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의 노자에 대한 논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노자』

1. 횡 여우란[풍우란(馮友蘭)]의 그늘 아래에서—도가철학(道家哲學) 發展 3단계설

○ 횡 여우란의 도가 철학의 발전에 대한 이해

- Neo-Taoism (도가 철학을 새롭게 해석)

→ '시대 철학의 독특성' 즉, 당시 현실의 반영을 무시한 채 관심의 초점이 '새로운 해석'에 맞춰짐. (사상사를 쓸 수 없게 만든다.)

- 휭 여우란의 新理學

→ 주자학 중심의 철학자였던 휭 여우란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철학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사상과 철학의 구분.

→ 사상은 넓은 개념, 철학은 그 가운데서 논리적, 과학적인 논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

(2교시)

○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 한국에서는 80년경 처음 번역됨.
- 동서양을 불문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책.

- 有生於無 : '존재는 비존재로부터 온다.' (→ 존재를 연구하는 서양의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서 중국의 철학은 비존재에 대해 논함.)

○ 휭 여우란의 도가철학 3단계설 中 2단계

- 제1단계: 휭 여우란은 도가의 출신이 ≪논어≫ 등에 나타나는 은자로부터 연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주장의 대표자가 양주이다. 이 양주의 사상은 爲我와 輕物重生이 대표적인 논지인데, 묵자의 겸애(兼愛)와 정반대되는 사상이며, 이러한 양주의 사상은 ≪노자≫, ≪장자≫, ≪여씨춘추≫ 등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도가 사상의 출발점은 생명을 보전하고 상해를 피하는 것인데, 양주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은둔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역시 이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로부터 발전하는 2, 3단계는 이기심 자체를 초월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 제2단계 : 휭 여우란은 어느 철학자나 텍스트에든 그 중심 관념이 있는데, ≪노자≫의 경우는 無名 곧 道이다. 이것은 곧 노자의 철학이 공자의 철학에 앞설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이 無名을 통해 휭 여우란은 共相 즉 서구의 보편자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론이 아닌 존재론으로 파악한다. 즉 유무의 관계는 논리적 우선성의 관계이지 발생론적 논의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리고 常道 관념을 통해서는 사물의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며, 이로부터 이른바 인식과 지혜(明)가 나오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無爲와 德 개념을 통해 이른바 인간 행위론과 정치 철학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서술되는 내용은 이른바 우리들의 '노장담론'에 대한 상식적인 서술들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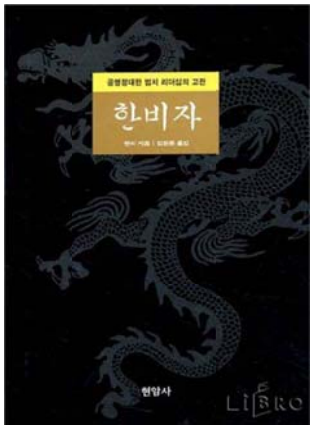
2. 우리 사회에서의 ≪老子≫ 解釋의 갈래

○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노자≫ 해석

(1) ‘제왕지술’(帝王之術)－법가적 해석

※ 법가(한비자의 法治)와 도가의 만남 : 매우 친한 관계. 법가는 형이상학적으로 도가를 차용하고 있다.

최근 道法家란 표현 등장.



- 대표: ≪한비자≫가 대표함

『한비자』

- 중심개념: **'도'(道)**(道를 얻은 자야말로 천하를 다스린다.(得道者 治天下))와 **'덕'(德)** 그리고 **'무위'(無爲)**

→ 제왕의 통치술을 위한 근거로 이해됨.

- **'무위'(無爲)**: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 최고 통치자의 행위를 지칭하는 말. 제왕무위(帝王無爲)-신하유위(臣下有爲)와 짝을 이룸. (≪노자≫에서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爲無爲, 則無不治. 3장) "성인은 무위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명령을 내린다"(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2장)

“인간 사회의 제도와 법률은 현상 세계의 대원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道生法.)(≪황제사경≫의 첫 구절))

- 크릴(H. G. Creel)의 주장: 도가와 법가가 실제로는 매우 친근한 관계이다. (≪노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무위(無爲)는 법가 사상가인 신불해(申不害)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술수의 개념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장자≫가 정치적 성격이 약한 ‘관조적’ 성격이 강하다면, ≪노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목적적’ 도가로 규정된다.

(3교시)

(2) '황로학'(黃老學)적 혹은 도교적 해석

○ 황로학적 해석

-연원: ≪장자≫에까지 더 멀리로는 ≪관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도가 전통의 일부. 최근에 자리잡게 됨.

-대표 문헌: ≪회남자≫. ≪하상공장구≫, ≪황제내경≫ 등까지 포함.

-최근 중국 학자들의 이해: '황로학'을 '형명법술'(刑名法術)을 위주로 하는 정치술로 이해. 법가적 해석과 차이가 없고 도교적 해석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 ≪하상공장구≫의 황로학은 도가 전통 전체에서 볼 때 도교와 한의학으로 이어지는 매개적인 문헌이다.

○ ‘도교적’ 해석

-≪노자상이주≫로 하는 한대 이후 발전하게 되는 도교의 주류적 해석 방식.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보존하고 길러 신체적 불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도교적 신념의 철학적 근거로

해석하는 시각을 말함.

-후한 이후 도교 교단의 성립과 더불어 다양한 분파와 이론으로 분기하는 것을 포괄.

→ 도는 우주적 생명 원리로 덕은 생명력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가 장생불사(長生不死)이다.

⇒ **문제점)**

①장생(長生)을 추구하는 양생론(養生論)과 불사(不死)를 추구하는 신선술(神仙術)의 차이, 황로학과 도교의 차이 등이 심각한 논제가 될 수 있다.

②이러한 해석이 '도교적' 해석의 차원으로 치부되면서 '노자 해석의 역사'에서 배제되어 왔고, 철학과 종교의 구분 속에서 서로 단절되어 왔다.(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할 때 그것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임)

⇒ 황로학과 신선술을 구분하며 황로학과 교단 도교 또한 다른 것으로 이해